

#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 The Validat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한 미 현\*

Han, Mi Hyun

유 안 진\*\*

Yoo, An J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with a population of Korean children. Subjects were 415 mothers of fourth and sixth graders selected from fiv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CBCL(Achenbach, 1991) and the Child Behavior Questionnaire(CBQ;Rutter et als., 1970) were used as a methodological instrument.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chi^2$ , Cramer's V, factor analysis, Pearson's r, and Cronbach's  $\alpha$ .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102 items of the 107-item scale were found acceptable through the item discriminant method. Nine factors (anxious behavior, hyperactive behavior, immature behavior, delinquent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withdrawn behavior, thought problems, somatic complaints, other problems) were extracted by factor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BCL and the CBQ was examined to test criterion-related validity, and the coefficient was significant ( $r=.78$ ,  $p<.001$ ). Finall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CBCL appeared to be at an acceptable level (Cronbach's  $\alpha=.83$ ).

### I. 서 론

#### 1. 연구목적

아동기에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그 유형이나 정

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기도 하고 또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도 하다. 어떠한 행동문제를 보이는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그리고 전체아동 중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것은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행동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도구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아직까지 아동의 행동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의된 도구가 개발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기의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는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를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도구는 연령에 따른 행동문제의 발현상 및 빈도 등의 기초자료의 수집을 가능케 해줄 뿐 아니라, 다수의 아동들 중에서 심각한 행동장애나 심리장애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가려내는 예비판별척도로서, 또 정신병리연구에서 연구대상의 객관적 선정을 위한 도구로서도 그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여러 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데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없어 이 분야의 효과적인 연구에 지장이 되고 있다.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또한 임상평가에 앞선 유용한 예비판별도구로 평가받고 있는 조사도구는 Achenbach가 개발한 아동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이다(Holden & Ritchie, 1991). Achenbach는 다수의 임상집단과 광범위한 정상집단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아동행동평가의 기준을 작성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여 문제를 밝히는데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Achenbach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는 Connors(1970)나 Rutter(1981) 등이 개발한 기존의 아동행동척도들보다 더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여러 임상현장

및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근래 국내에서도 아동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도구로 Achenbach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타당화 및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구 사용의 유용성과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오경자와 이해련(1990a)이 Achenbach와 동료(1983)에 의해 개발된 종전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정상군으로 1,331명의 국민학생과 임상군으로 73명의 국민학교 연령층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단지 임상적 유용성만 확인했을 뿐 문항분석이나 요인분석 등의 체계적인 검증과정은 거치지 못해 타당성은 입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오경자와 이해련(1990b)은 4-16세 남아를 대상으로 아동행동평가척도(Achenbach & Edelbrock, 1983)를 통해 문제행동증후군을 연구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역시 요인분석만이 실시되고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구성하는 문항의 양호도나 이론적 구인 등이 산출되지 않아 타당성 검증이 충분히 실시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더우기 최근들어 Achenbach(1991)가 종전의 아동행동평가척도(Achenbach & Edelbrock, 1983)를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1991년판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개발했으므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아동행동 평가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Achenbach(1991)가 개발한 최신 아동행동평가척도(CBCL)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인지를 검증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 행동평가척도(CBCL)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인가?

이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 1)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구성하는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 2)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3)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행동문제의 개념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과 가정, 학교, 이웃 등으로 구성된 환경체계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심리 및 사회적 원인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성영혜, 1993). 이러한 행동문제는 종류와 정도에 따라 수많은 행동들을 포함하고, 또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의하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겉으로 식별가능한 신체장애아동이나 또는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통해 판별할 수 있는 정신지체아동과는 달리,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간에 합의된 정의가 내려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고 또한 사회문화적 기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정의하고자 시도했다. 우선 Ross(1974)는 사회규범과 성인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행동이 사회규범으로부터 이탈되어 아동주위의 어른들에 의해 그 행동의 발생빈도나 정도가 너무 높거나 혹은 너무 낮다고 판단될 때, 그 아동은 행동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Kauffman(1980)은 아동이 자기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행동문제를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행동문제란 아동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홍경자(1986)는 행동문제를 아동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가면서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행동문제란 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들로서, 이는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가는 가운데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생겨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아동기와 행동문제

급속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나, 또 불안과 동요의 시기인 청소년기와 비교해 볼 때, 아동기는 비교적 안정되고 착실한 발달이 진행되는 평온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학교 입학과 더불어 가정환경에서 학교환경으로 생활의 중심이 바뀌게 됨에 따라, 아동들은 가족의 도움없이 다양각색의 욕구와 흥미를 지닌 또래들과 교제를 해야 하고 또 인지적, 사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여러가지 규칙과 기대를 충

죽시켜야 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기는 실제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사회정서적인 어려움 등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유아기나 청소년기의 행동문제에 비해 다소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고, 또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성의 발견에 시간을 요한다거나 또는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 질 때까지 방치해 버리기 쉬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머지않아 나타날 청년기의 문제를 이 시기에 육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사실상 그 이전에 기초가 배양되어 아동기에 이미 기초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그것을 간과하여 문제가 악화될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아동기는 문제의 예방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임상심리학적 관점과 예방차원에서 볼 때 다른 어떤 발달단계에서의 행동문제보다도 더욱 관심이 모아져야 할 연구대상이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3. 1991년판 4-18세용 아동행동평가척도 (CBCL for Ages 4-18, 1991 profile)

1991년판 4-18세용 아동행동평가척도(CBCL/4-18, 1991)는 Achenbach가 종전의 아동행동평가척도(Achenbach & Edelbrock, 1983)를 보완하여 새롭게 제작한 것이다. 종전의 척도와 비교해 보면, 적용대상을 17세와 18세까지로 확장했다는 점과 4,455명이라는 대규모 집단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

쳤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42번 문항의 경우 1991년 이전판에서는 '혼자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던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로 수정하는 등, 문항의 진술을 정교화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내면성 증후군, 외현성 증후군, 전체행동문제점수로 대별하였지만, 1991년판에서는 진일보하여 아동행동문제의 핵심증후군을 파악키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동문제의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핵심증후군 도출과정을 보면, 먼저 낮은 유병율을 보이는 문항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7개 요인에서 15개 요인까지 varimax 회전을 시키면서 요인구성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연령집단과 양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핵심이 되고 또한 YSR(Youth Self-Report)과 TRF(Teacher's Repot Form) 측정도구 모두에서 핵심이 되는 증후군 8개가 도출되었고, 이에 덧붙여 YSR과 TRF에는 없는 성문제가 아동행동 평가척도(CBCL)에서 따로 도출되었다. 핵심증후군으로 도출된 8개 요인은 위축행동, 신체증상, 불안/우울, 주의문제, 사회성문제, 사고문제, 비행, 공격행동 등으로 명명되었다. 따라서 1991년판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는 8개 핵심증후군과 성문제를 더하여 모두 9개의 증후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의 응답 및 점수부여 방식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로 되어 있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자

이 연구에서는 평소에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

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 국민학교 4학년과 6학년 남녀아동 46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가 2-3세 유아용과 4-18세 아동용으로 구분되고, 또한 4-18세용 아동행동평가척도는 부모평가용과 교사평가용으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모평가용 4-18세 아동행동평가척도(CBCL/4-18, 1991 profile)의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상의 표집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시 토지지가분류표(한국감정원)를 참조하여 5개구에서 1개 학교씩을 유의표집하고, 각 학교에서 4학년과 6학년 1개반씩을 선정하여 총 10개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199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교사들이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아동행동조사지를 보내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460부의 조사지를 배포한 결과, 431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신뢰할 수 없는 응답과 부실기재된 경우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415부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아동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성별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하였는데, 연령별 분포는 11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9세가 133명, 12세가 52명, 10세가 39명이고, 8세는 1명이었다. 아동의 행동을 평가한 사람은 어머니가 80%로 대부분이었고,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Achenbach(1991)가 개발한 4-18세용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는 총 113문항으로 구성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구 분	빈도(%)
아동의 성 별	남 자	204(49.2)
	여 자	211(50.8)
아동의 학 년	4학년	171(41.2)
	6학년	244(58.8)
아동의 연 령	8 세	1( 0.2)
	9 세	133(32.1)
	10 세	39( 9.4)
	11 세	190(45.8)
응답자	12 세	52(12.5)
	부	72(17.3)
	모	332(80.0)
	기 타	11( 2.7)
	계	415(100.0)

어 있는데, 이 중 56번 문항은 7가지의 세부적인 문제유형과 기타의 문제 등 8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113번은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문제를 기술토록 되어 있어 산출될 수 있는 전체 문항수는 120문항이 된다. 그러나 2번 문항(알레르기)과 4번 문항(천식)은 의미있는 변별력을 보이지 못해 1991년판에서는 전체 행동문제 점수에 산입시키지 않는다. 또한 아동의 연령별로 낮은 유행율을 보여 제외시키는 문항들이 있는데, 6-18세 아동의 경우 6번(화장실이 아닌 데서 용변을 본다), 28번(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다), 59번(공공연히 성기를 가지고 논다), 60번(성기장난을 너무 많이 한다), 72번(불을 지른다), 78번(용변본 것을 바르고 뭉갠다), 105번(알콜이나 약물을 복용한다), 106번(기물을 파괴한다), 107번(낮에 오줌을 싣다), 110번(반대의 성이 되고 싶어 한다) 등 10개 문항이 제외된다. 그러므로 변별력이 낮은 2개 문항과 6-18세

아동에게 적합치 않은 10개 문항 등 모두 12개 문항이 제외되어 120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108개 문항만이 6-18세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아동행동평가척도에 포함되는 108개 문항으로 아동행동조사지를 구성하였는데, 실제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113번 문항을 제외시키고 107개 문항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다. 각 응답에 대한 점수는 '그렇지 않다'는 0점, '가끔 그런 편이다'는 1점, '자주 그렇다'는 2점을 주었다. 따라서 전체 행동문제 점수는 0점에서 214점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한편 이 조사도구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준 변수로는 Rutter와 동료들(1970)이 개발한 CBQ(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행동을 진단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로 개발되었으며, 여러 문화권에서 폭넓게 사용되어져 왔다(황혜정, 1994). CBQ는 26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로 하며, 여기에 각각 0점, 1점, 2점씩을 주어 전체 합한 점수로 아동의 행동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26개 문항 중 문항변별도 및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BQ를 대표하는 문항으로 나타난 10개 문항을 선정하여 CBQ척도를 재구성하고, 이를 아동행동평가척도(Achenbach, 1991)의 기준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한 기준변수로 삼았다.

### 3.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조사대상아동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했다.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변별도 분석은 전체 응답분포를 토대로 상위 27% 집단과 하위 27% 집단을 분류한 후,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 빈도가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 지를  $\chi^2$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는 Cramer의 V계수를 산출했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회전은 varimax 회전방법을 선택했다. 한편 기준관련타당도는 본 척도의 측정값과 기준이 되는 척도의 측정값간의 상관관계로 나타나므로, 이의 검증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했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문항양호도

1991년판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문항들이 변별도면에서 양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X^2$ 값과 Cramer의 V계수를 산출했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X^2$ 검증결과를 보면, 107개 문항 중에서 102개 문항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나머지 5개 문항 중 4개 문항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고 1개 문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5개 문항은 Cramer의 V계수가 .20이하이므로 변별도 지수의 일반적 수용수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따라서 5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02개 문항이 변별도 측면에서 양호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문항별 양호도 분석결과

문항	문항별 평균	문항별 표준편차	$\chi^2$	Cramer's V	문항	문항별 평균	문항별 표준편차	$\chi^2$	Cramer's V
1	0.99	.65	51.48***	.50	45	0.61	.47	8.42*	.20
2	1.17	.69	68.08***	.57	46	1.09	.68	79.77***	.62
3	0.64	.52	13.09**	2.6	47	0.78	.64	17.16***	.29
4	1.04	.67	39.11***	.44	48	0.66	.47	47.13***	.48
5	1.53	.74	25.60***	.35	49	0.97	.68	41.02***	.45
6	1.18	.75	46.93***	.48	50	1.02	.68	48.30***	.48
7	1.32	.80	52.09***	.50	51	0.75	.64	20.91***	.32
8	0.99	.68	61.97***	.55	52	0.59	.46	44.82***	.47
9	1.14	.72	39.41***	.44	53	0.78	.62	47.99***	.48
10	0.75	.56	55.79***	.52	54	0.84	.62	72.44***	.59
11	1.11	.75	51.05***	.50	55	0.80	.62	50.60***	.50
12	0.52	.34	19.46***	.31	56	0.77	.58	22.63***	.33
13	0.72	.56	64.73***	.56	57(1)	0.54	.42	17.24***	.29
14	0.84	.62	60.93***	.54	57(2)	0.74	.54	18.17***	.30
15	0.44	.22	11.62**	.24	57(3)	0.56	.44	24.49***	.34
16	0.98	.65	40.06***	.44	57(4)	0.76	.67	24.26***	.34
17	0.59	.46	32.23***	.40	57(5)	0.57	.45	7.21*	.19
18	0.50	.33	26.67***	.36	57(6)	0.66	.50	11.53**	.24
19	1.05	.64	61.09***	.54	57(7)	0.49	.33	15.56***	.27
20	0.70	.53	82.46***	.63	57(8)	0.54	.40	7.72*	.19
21	0.97	.71	24.27***	.34	58	0.98	.68	38.47***	.43
22	0.72	.54	58.95***	.53	59	0.95	.67	45.23***	.47
23	0.61	.48	51.07***	.50	60	0.61	.48	33.07***	.40
24	1.20	.63	40.08***	.44	61	0.52	.40	27.97***	.37
25	1.13	.70	49.46***	.49	62	0.92	.68	62.18***	.55
26	0.55	.41	29.42***	.38	63	0.75	.59	40.07***	.44
27	0.76	.59	33.67***	.40	64	0.49	.35	20.44***	.32
28	1.00	.72	16.52***	.28	65	1.03	.67	52.08***	.50
29	0.79	.57	40.42***	.44	66	0.46	.25	17.35***	.29
30	0.50	.35	27.16***	.36	67	0.86	.60	34.40***	.41
31	0.63	.47	51.63***	.50	68	1.23	.71	53.31***	.51
32	0.73	.59	56.15***	.52	69	0.71	.59	15.27***	.27
33	0.83	.62	74.57***	.60	70	0.84	.66	29.81***	.38
34	0.68	.52	44.02***	.46	71	0.57	.44	33.18***	.40
35	0.47	.27	19.72***	.31	72	0.54	.38	38.93***	.43
36	0.47	.30	15.73***	.28	73	0.47	.25	9.76**	.22
37	0.77	.55	77.15***	.61	74	0.43	.19	11.08**	.23
38	0.78	.61	11.12**	.23	75	0.90	.67	61.32***	.55
39	0.77	.55	53.79***	.51	76	0.46	.29	17.35***	.29
40	0.87	.73	36.96***	.42	77	0.50	.38	25.47***	.35
41	0.99	0.68	50.67***	.50	78	1.26	.74	86.22***	.65
42	0.54	0.41	29.76***	.38	79	1.06	.66	76.48***	.61
43	0.70	.53	42.56***	.45	80	1.18	.68	71.43***	.59
44	0.61	.48	55.84***	.52					

문항	문항별 평균	문항별 표준편차	$\chi^2$	Cramer's V
81	0.65	.53	69.70***	.58
82	0.52	.37	33.31***	.40
83	0.46	.27	9.02*	.20
84	0.61	.48	22.11***	.33
85	0.76	.60	51.43***	.50
86	0.68	.50	51.93***	.50
87	0.93	.68	68.50***	.58
88	0.52	.35	24.63***	.35
89	0.45	.24	15.02**	.27
90	0.57	.46	22.70***	.33
91	0.95	.65	26.40***	.36
92	0.57	.50	18.12***	.30
93	0.41	.12	1.84	.09
94	0.73	.58	47.45***	.48
95	0.50	.34	33.75***	.40
96	0.80	.66	67.98***	.57
97	0.49	.33	14.32***	.26
98	0.66	.52	42.00***	.45
99	0.58	.45	36.04***	.42
100	0.80	.57	67.25***	.57

\*\*\* $p < .001$  \*\* $p < .01$  \* $p < .05$

## 2. 타당도

다음으로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도구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문항변별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102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절차는 Achenbach(1991)와 마찬가지로 먼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varimax 방법으로 회전시키고 요인수를 7개에서 15개까지 변화시키면서 문항구성의 적합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9개로 요인수를 지정할 때 문항이 가장 적합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항이 양호하고 요인부하값이 .30 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부록 참조).

<표 3>에 제시된 바와같이 '요인 1'은 전체변

량의 15.35%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16개 문항이 포함되는데, 이는 불안이나 긴장, 걱정 등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불안행동'이라 명명할 수 있다.

전체변량의 5.09%를 차지하는 '요인 2'는 부산한 행동이나 급한 성미, 주의집중 곤란 등의 주의산만한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과잉행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요인에는 13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요인 3'은 전체변량의 4.41%를 설명해주고 9개의 문항이 포함되는데, 이 요인은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하거나 어른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의 어린 아이의 행동특성과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미성숙 행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10개 문항이 포함되는 '요인 4'는 전체변량의 4.10%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행'이라 명명할 수 있다.

'요인 5'는 전체변량의 3.27%를 차지하고 12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요인은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들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격행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12개 문항이 포함된 '요인 6'은 전체변량의 3.16%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요인은 위축되어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등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축행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요인 7'은 전체변량의 3.06%를 설명해주고 11개 문항이 포함되는데, 이 요인은 이상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또는 헛 것을 보는 등 정신병적인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고문제'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 8’은 9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2.96%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이상을 보이는 경우이므로 ‘신체증상’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9’는 8개 문항이 포함되며 2.90%를 설명해주는데, 이 요인은 공통된 특성이 없이 여러가지 혼합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불특정 행동문제’로 명명할 수 있다.

〈표 3〉 아동 행동문제의 요인행렬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h'
41	.59									.48
46	.59									.49
25	.52									.35
100	.52									.42
28	.45									.31
27	.43									.25
91	.40									.24
68	.39									.55
6	.38									.27
80	.33									.45
29	.32									.24
48	.31									.29
60	.31									.21
65	.31									.47
37	.29									.31
88	.22									.16
85	.61									.47
62	.59									.44
96	.56									.44
67	.49									.32
87	.47									.42
2	.43									.37
79	.41									.43
16	.39									.36
78	.39									.46
24	.37									.31
13	.37									.47
58	.34									.25
7	.32									.45
56	-.29									.26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h'
8		.62								.45
1		.57								.40
5		.43								.33
19		.42								.42
59		.39								.30
9		.38								.23
4		.37								.41
98		.36								.33
11		.35								.33
20			.54							.48
35			.49							.29
54			.44							.52
40			.43							.27
39			.38							.33
90			.37							.28
63			.34							.28
26			.31							.24
73			.30							.14
53			.23							.21
18				.57						.44
12				.53						.42
15				.51						.31
23				.49						.36
17				.47						.40
52				.36						.43
32				.35						.39
86				.34						.41
33				.30						.45
81				.29						.40
3				.29						.25
42				.28						.23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h <sup>2</sup>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h <sup>2</sup>	
55					.60					.43	57(2)										.57	.36
99					.49					.51	47										.52	.33
51					.45					.37	21										.50	.45
70					.43					.25	57(6)										.42	.43
34					.40					.30	57(1)										.36	.23
49					.40					.41	50										.36	.35
22					.39					.42	57(4)										.34	.17
44					.38					.38	57(3)										.32	.52
94					.36					.42	57(7)										.32	.44
14					.32					.34	72										.50	.39
30					.31					.32	10										.47	.38
31					.30					.34	43										.39	.29
77						.54				.42	69										.38	.31
74						.53				.46	84										.36	.22
76						.52				.39	71										.31	.27
66						.50				.32	97										.30	.21
61						.49				.38	92										.30	.15
89						.45				.40	36										.26	.31
82						.38				.39	평균	14.64	4.17	3.47	3.16	2.32	2.21	2.10	2.00	1.94		
95						.36				.30	분편량	15.35	5.09	4.41	4.10	3.27	3.16	3.06	2.96	2.90		
64						.35				.39	총분편량	44.30										
75						.25				.26												
38						-.25				.26												

〈표 4〉 문항 양호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선정된 문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요인 1	41, 46 25 100, 28, 27, 91, 68, 6, 80, 29, 48, 60, 65	14
요인 2	85, 62, 96, 67, 87, 2, 79, 16, 78, 24, 13, 58, 7	13
요인 3	8, 1, 5, 19, 59, 9, 4, 98, 11	9
요인 4	20, 35, 54, 40, 39, 90, 63, 26, 73	9
요인 5	18, 12, 15, 23, 17, 52, 32, 86, 33	9
요인 6	55, 99, 51, 70, 34, 49, 22, 44, 94, 14, 30, 31	12
요인 7	77, 74, 76, 66, 61, 89, 82, 95, 64	9
요인 8	57(2), 47, 21, 57(6), 57(1), 50, 57(4), 57(3), 57(7)	9
요인 9	72, 10, 43, 69, 84, 71, 97, 92	8

이 연구에서 얻어진 요인분석결과와 Achenbach(1991)의 요인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조사도구가 총 9개의 요인구조로 구성되고 그 중 8개의 핵심증후군이 같다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Achenbach(1991)의 경우엔 성문제가 별개의 요인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불특정 행동문제가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와 우리나라간의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즉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인 관심이나 행동의 표현이 매우 급기시 되고 억압되어 있기때문에 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동의 행동문제로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chenbach(1991)의 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의 수와 내용면에서 비교해 보면, Achenbach(1991)의 연구에선 위축행동에 10개 문항, 신체증상에 9개 문항, 불안행동에 14개 문항, 사회성 문제에 8개 문항, 사고문제에 7개 문항, 주의문제에 11개 문항, 비행에 13개 문항, 공격행동에 20개 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행동

과 비행에서만 이 연구의 결과보다 문항수가 많고 그외의 요인에선 큰 차이가 없다. 한편 하위요인별로 묶인 문항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요인에 대한 명칭만 다를 뿐 구성문항의 내용은 비슷하다. 즉 Achenbach(1991)가 사회성 문제로 명명한 요인은 이 연구에서 미성숙행동이라 명명한 요인과, 주의문제라고 명명한 요인은 과잉행동이라고 명명한 요인과 문항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 외의 요인은 요인에 대한 명칭과 문항의 내용 모두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Achenbach(1991)의 요인분석결과와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1개 요인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8개의 핵심증후군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1년판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기준관련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도구와 CBQ(Rutter, Tizard & Whitmore, 1970)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변수간 상관계수가  $r=.78(p<.001)$ 로 나타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기준관련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또한 하위요인별로 기준척도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CBCL과 CBQ간의 상관계수

	CBCL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CBQ	.78**	.58**	.60**	.55**	.61**	.57**	.57**	.48**	.39**	.47**

\*\* $p<.001$

### 3. 신뢰도

1991년판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나타내주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alpha=.83$ 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요인 9'를 제외한 나

머지 8개 요인 모두  $\alpha=.70$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요인 9'의 경우는  $\alpha=.60$ 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요인 9'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공통적 특성이 없는 복합적인 행동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6〉 CBCL의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하위 요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요인 1	14	.78
요인 2	13	.83
요인 3	9	.73
요인 4	9	.70
요인 5	9	.72
요인 6	12	.74
요인 7	9	.70
요인 8	9	.70
요인 9	8	.60
전 체	92	.83

## V. 요약 및 결론

아동의 행동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정보는 대개 부모나 아동을 잘 알고 있는 성인으로부터 입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모설문에 의한 아동행동평가방법은 아동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부모가 평정한다는 점과,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여 다수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 등으로 임상평가에 앞선 예비 판별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설문에 의해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가 개발되고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Connors(1970)와 Rutter(1981), Achenbach와 Edelbrock(1983) 등의 부모설문용 아동행동평가척도들이 이용되어 왔는데, 특히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척도는 과학적이고 광범위한 평가도구로 널리 인정받았다(홍강의와 홍경자, 1983). 그러다가 최근에 Achenbach(1991)가 종전의 아동행동평가척도(Achenbach & Edelbrock, 1983)를 수정보완하여

1991년판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다시 제작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1991년판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에 포함된 120개 문항 중 6-18세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부적합한 12개 문항은 제외시키고 총 108문항으로 구성된 부모평가용 아동행동조사지를 제작하였다. 그런 다음 서울시 소재 국민학교 5개교의 4학년과 6학년 아동의 부모 4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행동을 평가토록 하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아동행동조사지에 포함된 108개 문항 중에서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107개 문항에 대해 문항양호도 검증을 위한 변별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문항이 낮은 변별력을 보여 제외되고 102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척도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8개의 핵심증후군과 1개의 불특정 문제 등 9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9개 요인은 '불안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비행', '공격행동', '위축행동', '사고문제', '신체증상', '불특정행동문제'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chenbach(1991)의 요인분석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8개의 핵심증후군은 같지만 Achenbach의 경우에는 '성문제'가 별개의 요인을 구성하는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불특정

문제'가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행동의 표현을 억압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각 나라마다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특징적인 행동문제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국의 조사도구를 받아들여 사용코자 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을 검증해보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타당성 검증과정이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과의 해석에도 무리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와 Rutter와 동료들(1970)이 개발한 CBQ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78(p<.001)$ 로 나타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또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alpha=.83$ 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는 약간의 수정보완을 하면 한국에서도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부모설문형식의 아동행동평가척도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부모가 평정한다는 점과, 부모견해의 편파성으로 인하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 아동을 유의표집했다는 점과 임상집단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 다양한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검사-재

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지 못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도 적용가능한 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시도하고, 아울러 외국척도의 사용시 타당성 검증과정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이혜련(1990a). 아동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29(2), 452-462.
- \_\_\_\_\_ (1990b). 한국아동청소년의 문제 행동증후군 연구 I: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 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9(1), 33-55.
- 홍강의·홍경자(1983). 부모설문에 의한 아동의 행동문제분석: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2(3), 366-374.
- 홍경자(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1994). 가족구조가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2), 195-211.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 of Vermont, Dep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 of Vermont, Dept. of Pshchiatry.
- Connors, C. K.(1970). Symptom patterns in hyperkinetic, neurotic and norm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1, 667-682.
- Holden, G. W., & Ritchie, K. L.(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Kauffman, A. S.(1980). *Issu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Interpreting the WISC-R intelligently*.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3. N. Y.:Plenum, 1980.
- Ross, A. O.(1974). *Psychological disorders of children:A behavioral approach to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 Y.:McGraw-Hill.
- Rutter, M.(1981). *Parental and teacher questionnaire*. London:Longman.
- Rutter, M., Tizard, J., & Whitmore, K. (1970). *Education, health and behavior*. London:Longman.

## 부 록

### 〈문항양호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선정된 문항〉

요인	번호 <sup>1)</sup>	문 항	
불안행동	41	신경이 예민하고 긴장을 잘 한다	
	46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 한다	
	25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 또는 장소를 겁낸다	
	100	걱정을 많이 한다	
	28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27	나쁜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 한다	
	91	단정하거나 청결한 것에 너무 신경을 쓴다	
	68	수줍음을 많이 타고 소심하다	
	6	어떤 생각에 집착하여 그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80	잘 토라진다	
	29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불평한다	
	48	죄의식을 너무 느낀다	
	60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65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쉽게 당황한다	
	과잉행동	85	수다스럽다
		62	고함을 잘 지른다
96		유난히 목소리가 크다	
67		남들 앞에서 뽐내거나 웃기는 행동을 한다	
87		생떼를 쓰거나 성미가 급하다	
2		말다툼을 많이 한다	
79		기분이나 감정이 자주 변한다	
16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한다	
78		거집이 세고 뿌듯하거나 신경질적이다	
24		질투심을 잘 느낀다	
13		남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한다	
58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7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하다	
미성숙 행동	8	어른에게 매달리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1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5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없다	
	19	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59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9	심심하거나 외롭다고 불평한다	
	4	조그만 일도 자랑하거나 으시댄다	
	98	징징대거나 칭얼거린다	
	11	잘 운다	

요인	번호	문항
비행	20	학교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35	말썹을 일으키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
	54	공부를 잘 못한다
	40	손톱을 깨문다
	39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90	손가락을 뺏다
	63	비밀이나 남 몰래 간직하는 것이 많다
	26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73	집에서 물건을 훔친다
공격행동	18	가족이나 남의 물건을 잘 부순다
	12	동물이나 식물들을 거칠게 다룬다
	15	일부러 자기 몸에 상처나 해를 입힌다
	23	나쁜 짓을 한 후에도 가책을 별로 안 느낀다
	17	자기 물건을 잘 부순다
	52	사람들을 잘 때리거나 친다
	32	다치기도 잘 하고 사고도 잘 낸다
	86	형제나 다른 아이들을 잘 놀린다
	33	남들과 자주 충돌하거나 잘 싸운다
위축행동	55	운동신경이 둔하거나 몸동작이 어설피다
	99	위축되어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51	비만이다
	70	하루의 수면시간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다
	34	남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한다
	49	과식을 한다
	22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44	다른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별로 없다
	94	비활동적이고 동작이 느리거나 기운이 없다
	14	혼자만이 생각이나 공상에 잘 빠진다
	30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31	자기는 보잘 것 없거나 열등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사고문제	77	이상한 생각을 한다
	74	집 밖에서 물건을 훔친다
	76	이상한 행동을 한다
	66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61	말도 없이 집을 나가곤 한다
	89	남들을 위협한다
	82	상스럽거나 음란한 말을 한다
	95	불행하다고 여기며 슬퍼한다
	64	있지도 않은 헛 것을 보곤 한다



요인	번호	문항
신체증상	57(2)	두통
	47	잘 어지러워 한다
	21	잘 먹지 않는다
	57(6)	복통
	57(1)	몸이 쭈시고 아픔
	50	늘 피곤해 한다
	57(4)	눈에 문제가 있음
	57(3)	메스꺼움
57(7)	구토	
기타	72	멍하게 허공을 응시한다
	10	어리둥절해 하거나 멍해 보일 때가 있다
	43	악몽을 꾸다
	69	다른 아이들보다 잠을 적게 잔다
	84	잠꼬대를 하거나 자면서 걸어 다닌다
	71	말을 더듬거나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97	잠자다가 오줌을 싣다
	92	수면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제외된 문항〉

구분	번호	문항
문항양호도 분석결과	45	변비증이 있다
제외된 문항	57(5)	발진 또는 피부질환
	57(8)	기타의 신체증상
	83	자살에 대해 얘기한다
	93	무단결석을 하거나 수업을 빼먹는다
요인분석 결과	88	성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제외된 사항	37	충동적이거나 생각없이 행동한다
	56	말을 잘 안한다
	53	코를 후비거나, 피부나 몸의 어떤 부분을 쥐어 뜯는다
	81	의심이 많다
	3	남자가 여아같이 행동하거나 여자가 남아 같이 행동한다
	42	신경과민적 몸짓이나 근육경련을 보인다
	75	필요없는 물건을 모아둔다
	38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있기를 좋아한다
36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도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주 1) 번호는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아동행동조사지 번호로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번호와 일치함.